

Multilingual Electronic Newsletter

多言語メールマガジン

가고시마南の風便り

Kagoshima Southern Wind Tidings



VOL.173

1 국제교류원 칼럼

사계절 - 사계절을 느끼며 보낸 지난 1년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원 이민(싱가포르 출신)

2 지사 관련 소식

주일 영국대사가 방문하였습니다. (10월 24일)

주일 체코대사가 방문하였습니다. (10월 24일)

3 가고시마 국제교류 A-Z

「파라과이와 가고시마」 강좌 개최

4 관광 가고시마 제철 정보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 「맹그로브 원생림」

●사계절 - 사계절을 느끼며 보낸 지난 1년●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원 이민(싱가포르 출신)

어느새 벌써 연말이네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기온의 변화와 함께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가고시마에 온 지도 1년이 조금 넘었네요. 그 기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모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고향인 싱가포르는 전형적인 열대 우림 기후로, 기온 연교차가 거의 없어 뚜렷한 계절의 변화가 없는 나라입니다. 낮 기온은 32°C, 밤 기온은 27°C로 일 년 내내 안정적이며 계절은 여름과 장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싱가포르 사람이 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해외 여행 중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던 중 저는 작년 10월부터 국제교류원으로서 가고시마현에 채용되어 처음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지역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여름은 계속된다...

사계절이 있으면 항상 새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봄의 다채로운 빛깔의 꽃밭, 여름의 아름다운 불꽃놀이, 가을의 붉은 단풍 그리고 겨울의 차가운 아름다움... 정말로 멋진 풍경이죠.

이러한 사계절을 지닌 일본에 살면서 싱가포르 출신인 저에게는 여러 가지 과제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담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가을

제가 가고시마에 온 것은 작년 10 월입니다.

저에게는 이미 익숙한 여름 날씨로, 아주 편안히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바로 찾아온 가을 날씨와 함께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단풍은 일교차가 클수록 더 예쁘게 물든다고 하지만, 저는 낮과 밤의 큰 기온 차에 적응하기 바빴습니다.

매일 같이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할까'를 고민하고 고민하며 필사적으로 실험하였습니다.

싱가포르에 있을 때에는 일 년 내내 여름옷만 입었지만, 일본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죠. 하지만 이제는 제법 날씨 앱과도 친숙해져서 날씨 앱의 작은 숫자에 따라 그날의 복장을 결정하고는 한답니다.



【가을】 기리시마(霧島)시의 단풍

- 겨울

겨울은 살며시 다가와 이전보다 더욱 추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지내며 해라는 존재에 대해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을 때에는 햇볕은 뜨겁고 불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에 받는 햇살은 따뜻하고, 마치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겨울 해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편, 겨울 추위에도 좋은 점은 있었습니다. 추위 덕분에 벌레와 곰팡이가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온다습한 싱가포르에서는 벌레, 곰팡이와의 전쟁이 거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추운 겨울 동안에는 그러한 것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겨울】 이즈미(出水)시의 두루미

- 봄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기력도 회복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봄이 찾아온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봄을 느낄 새도 없이 겨울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뀐 듯한 느낌이었죠.

내년에는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며 찾아오는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만끽하고 싶습니다.



【봄】 가고시마시의 벚꽃과 사쿠라지마(桜島)

- 여름

매미 소리와 함께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가고시마의 여름과 싱가포르의 여름의 차이는 바로 습도입니다. 싱가포르는 습도가 매우 높아서 폭폭 찜뚱이 무덥습니다.

가고시마의 한여름의 강한 햇빛은 피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기온은 싱가포르와 비슷한 정도까지 오르며, 개인적으로는 '드디어 나의 계절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계절의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져 이곳의 사계절은 마치 「인생에 있어 불변하는 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의 콘셉트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계절은 없습니다. 익숙해지면 어김없이 다음 계절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여름】 가고시마시의 불꽃놀이

처음으로 사계절을 느끼며 보낸 지난 1 년은 새로운 도전이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매년 찾아오는 네 명의 친구가 생겼습니다.

다음에 찾아올 계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지사 관련 새소식 - The Governor's Movements

●주일 영국대사가 방문하였습니다.●

10월 24일, 주일 영국대사관의 롱바텀 대사가 현청을 예방하였습니다.

롱바텀 대사는 와규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쥔 가고시마 와규 맛에 대한 극찬의 말씀과 함께 영국과 가고시마의 역사적 관계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상호 이해와 관계 강화를 위해 청소년 교류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시오타 지사는 런던 캠던구 및 맨체스터시와 체결한 우호 협정에 의거하여 앞으로도 영국과의 교류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검역 조치의 완화로 인해 상호 간의 이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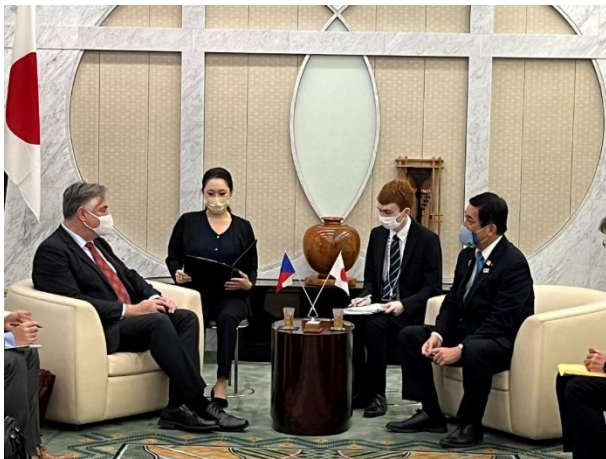
좌: 롱바텀 대사 / 우: 시오타 지사

●주일 체코대사가 방문하였습니다.●

10 월 24 일, 주일 체코대사관의 Tomčo 대사가 현청을 예방하였습니다.

Tomčo 대사는 가고시마 와규가 전국 와규 능력 공진회에서 내각총리대신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하며, 체코와 가고시마는 우주 산업에 주력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사쿠라지마와 가고시마의 낙도는 체코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관광지라고 말하였습니다.

시오타 지사는 본 현의 체코 맥주 제조 회사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아마미오시마 · 도쿠노시마, 야쿠시마 등을 소개하며 체코 분들께서 가고시마를 직접 방문하여 아름다운 자연과 와규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좌: Tomčo 대사 / 우: 시오타 지사

●「파라과이와 가고시마」 강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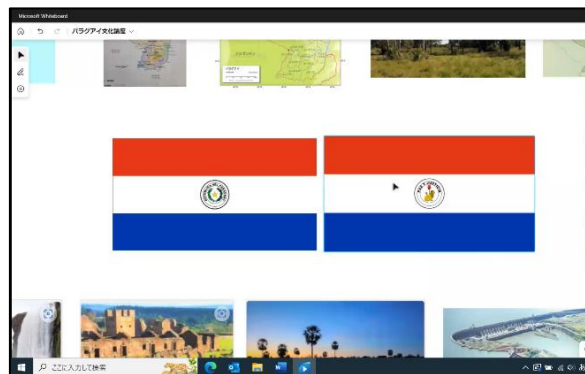


11 월 20 일, 가고시마에서 남아메리카 파라과이로 이주한 사람들의 역사를 배우는 강좌 「파라과이와 가고시마」 강좌가 가고시마 현민교류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파라과이에 있는 현인회의 설립 60 주년을 기념하여 가고시마현 국제교류협회가 주최한 이번 강좌에서는 현지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이구아수 이주 사료관의 소노다 야쓰로(園田 八郎) 회장으로부터 파라과이는 어떤 나라인지, 가고시마에서 파라과이로 이주한 당시의 경험과 지금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인의 파라과이 이주는 1936 년에 시작되어 현재도 9 군데의 일본인 거주지가 있으며 현인회에는 일본계 2 세, 3 세를 포함한 40 세대 120 명이 정기적으로 교류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로부터는 파라과이와 이주 역사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으며, 중간중간 들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좌: 강좌 모습 / 우: Zoom 설명의 한 장면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 「맹그로브 원생림」●

오늘의 사진은 아마미오시마의 「맹그로브 원생림」입니다!

열대·아열대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맹그로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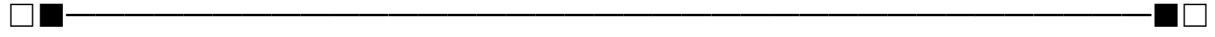
카누를 타고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아마미오시마의 대자연을 만끽해 보는 것은 어떠세요?

Photo by @komajun0318 님 (출처: Instagram), 멋진 사진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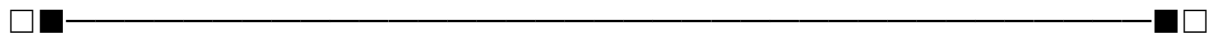
가고시마현청 홈페이지 <http://www.pref.kagoshima.jp/>



편집후기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이번 달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은 어떠셨는지요?

앞으로도 저희 가고시마현청 메일 매거진은 가고시마와 여러분을 연결하는 정보의 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집자 일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 게시판」에서는 가고시마에 관한 화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 및 게재합니다.

1. 가고시마 포토 갤러리

가고시마만의 매력이 담긴 사진이나 해외에서 발견한 가고시마의 사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더미처럼 쌓인 화산재 봉투)

2. 가고시마 생활의 지혜

가고시마의 생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예: 사쓰마아게를 맛있게 먹는 법, 화산재 대처법)

이 밖에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할 여러분의 다양한 정보를 기다립니다.

▲▽▲▽ 기사 제공 및 문의처 ▲▽▲▽

일본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 890-8577 가고시마시 가모이케 신마치 10-1

TEL: +81-99-286-2306

FAX: +81-99-286-5522

↓ 전자메일 주소

영 어 : cir1@pref.kagoshima.lg.jp

한국어 : cir3@pref.kagoshima.lg.jp

일본어 : minami@pref.kagoshima.lg.jp

본 기사의 저작권은 가고시마현에 있습니다. 무단게재와 불법복사를 금합니다.